

교 훈

1. 우리는 제세주 수운천사님을 모양한다.
2. 우리는 유불선 합일의 대도를 천하에 전도한다.
3. 우리는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삼대원을 성취한다.
4. 우리는 사람 섬김을 하늘님 공경하듯이 한다.
5. 우리는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한다.

수운교보

• 발행 인: 총무원장 김 덕 환
 • 편집 주 간: 부총무원장 박 신 규
 • 발행 처: 수운교본부
 • 발행 소: 34059 대전시 유성구 지운로 245번길 80(추목동)
 • 창간 일: 수운강생 175년(1996) 11월 15일
 • 전화 / 팩 스: (042)861-1771·862-9436/862-1772
 • 인쇄 처: 삼성디자인기획 (042)221-3111
 • 홈페이지: http://www.suwoongyo.or.kr

수운천사 탄강198년 기념법회 봉행

음력 4월 15일(양 5. 19) 오전 10시에 수운교 본부 도솔천과 전국의 각 지부에서 수운천사 탄강 198년 기념 봉축법회를 봉행하였다.

이날은 온 누리에 평화롭고 자비로운 지상천국을 이루고자 수운천사께서 오신지 198년이 되는 날이며 대각 성도하신지 16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이다. 초여름이 시작되는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에 수운교 본부 도솔천에서 이태화 경위사의 집례로 기념법회를 봉행하였다.

이태화 경위사는 봉축기원문을 통해 “대한민국 만만세 통령각료 진총량 조국 평화통일 성업완수 우순풍조 시화연풍 천하태평 법륜상진 십류사생 평등성불 명명천지 사해중에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지 삼대원 오만 년 무량대도 속득원만 성취지대원”을 기원하였다. 기념식 장인 도솔천에는 오색 연등과 만국기가 미풍에 나부끼는 가운데 궁을 마크가 영롱한 파란색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 뜻깊은 기념 법회임을 말해주는 듯하였다.

김덕환 총무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천시대 미완성의 종교가 후천시대 성숙한 종교로 완성되는 무왕불복의 순환지리에 따라 후천대도를 이루어 이 땅에 지상천국의 낙원이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박성기 겨레얼 살리기 이사장은 “수운교 교인 여러분들이 오매불망 염원하시는 삼대원 속득 성취되기를 함께 기도하자”라고 약속하였다.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을 대신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 권춘식 과장이 축사를 대독하였다. “종교 간 화합과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염원하였다. 교인들은 9시 20분에 법회당에서 집결하여 9시 30분에 오색 등롱을 선두로 궁을기, 보상개, 청색기, 황색기, 적색기, 백색기의 뒤를 이어 불모관(도관) 천의 도복을 착용한 교인과 선관 선복 천의를 착용한 교인 순서로 도행하였다.

이어서 여자 교인은 오색등롱, 보상개, 흑색기의 뒤를 이어 선관 선복을 착용한 순서대로 도행하였다.

종교체험을 위해 서울대학교 구형찬 교수, 박병훈 대학원생 등이 함께 도행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각 지부의 천법당에서도 각 지부장의 집례로 의식을 봉행하였다.

기념법회를 봉행하는 날 아침에 축축한 단비가 내려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었다. 그러나 법회 시간에는 화창한 봄날의 온화한 미풍이 부는 가운데 법회를 봉행하였다. 봉령각과 법회당으로 도행하는 길에는 좌우에 불두화 작약 꽃이 만개하여 탄강 기념법회를 축하해주는 듯하였다. 특히 봉령각에는 황금철쭉이 만개하여 방문객의 시선을 독차지하였다. 철쭉의 꽃말은 ‘사랑과 기쁨’이라고 한다. 꽃말과 같이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베풀어 온 인류가 일가 동락하는 도덕 세계의 지상천국 건설이 멀지 않았음을 예시하는 듯하다.



위령제 봉행



5월 20일(음력 4월 16일) 오전 10시 법회당에서 선망 부모 조상님과 순국 선열 및 전몰군경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봉행하였다.

위령제는 명축 분향을 시작으로 주법사인 김승천 정위사와 김영호 의전부장을 비롯한 본부와 지부의 많은 법사들의 집례로 남녀 교인과 유가족 등 4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이날 김덕환 총무원장은 천사님께서 생과 사의 이치를 말씀하시되 “생사불이(生死不二)요 다만 유일 신령이 오고 가는 것뿐이니라 생사의 이치를 깨달으면 도의 근원을 알 것이니 생과 사는 둘이 아니요 하나이니라 그것은 유일 신령의 변화함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신령이 어찌하여 생사 변화를 하는가 하면

이는 보다 이상의 세계를 창조하려는 영적 성장을 위한 하늘님의 뜻에서 온 것이다 할 것이니 생사를 잘 살피서 수련기도하며 오늘의 위령천도제가 부모 조상님과 사랑하는 이들의 왕생극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신원행(信願行)을 다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 이루어 내자고 강조하였다.

김영호 의전부장은 “오늘 우리가 위령제를 봉행하는 것은 수운천사님께서 정하신 날로 모든 영가님들이 불천사(佛天師)님의 법문을 들으시고 모든 죄업을 뉘우쳐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영가님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함으로써 우리들도 뜻하신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법하였다.



기념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교인 여러분!
 그리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성스러운 봉축법회에 참배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시간 각 지부와 선교소의 천법당에서 거행되는 봉축법회에 참배하신 전국 교인 여러분 모두에게 불천사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수운천사님께서 온 인류를 널리 구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지 198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며 만고에 없는 무극대도를 대

각성도 하신지 160년이 되는 날입니다.
 “금불문 고불문 지사요 금불비 고불비 지법”이라 다시 말씀드려 이제도 듣지 못하고 옛적에도 듣지 못한 일이지요. 이제도 비길데 없고 옛적에도 비길데 없는 법입니다.
 수운천사님께서 밝히신 동학의 대도는 선천시대 미완성의 종교가 후천시대 성숙한 종교로 완성되는 무왕불복의 순환지리에 따라 오만 년 후천대도를 이루어 우리 모두가 하늘님과 하나가(동귀일체) 됨으로 이 땅에 지상 천국의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인여천으로 사람을 모시고 대하고 섬기는 일을 하늘님 모심처럼 행함을 최고의 덕목과 최고의 가치로 하는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하늘님과 하나가 됨을 천일합일(天—合一)을 훼손하는 일이지요.

삼대원 성취를 지연시키고 지상천국으로 향하는 대도의 발전에 앞을 가로막는 역천이 됨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이 자리에선 우리들은 수운교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 되돌아보며 종교인과 교단의 면모를 다시 가다듬고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금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정부 수립 백 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83년 전 정축년(1937) 5월에 일제는 수운교와 수운교의 모든 의식과 예참 경전 등을 폐지하고 해방이 되기까지 8년 동안을 일본의 진종 동본원사에 강제 귀속시켜 수운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히 말살하였으나 우리 선배 교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수운교 본래의 정신을 가다듬고 많은 교인들이 밤을 이용해 금병산 12봉에서 민족 해방의 치성기도를 봉행하였으며 진종을 반대하고 수운교의 본래 의식으로 조국 해방을 위해 치성기도를 봉행하다가 발각되어 철원에서 28명이 구속되고 5명이 모진 고문으로 옥사하였으며 선교리에서 8명, 평택에서 2명, 각 지부에서의 소환 조사 등 많은 탄압과 구금이 자행되었으나 그 믿음은 더욱 굳건하였습니다.

동학으로부터 시작된 보국안민의 숭고한 정신을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도 추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깊은 신앙과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스러운 봉축법회에 참배하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준비에 만전을 다하신 교인동덕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불천사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축원 드리며 삼가 봉축사에 갈음합니다.
 수강 198년 4월 15일
 총무원장 윤호 김 덕 환 합장

축사

먼저 수운천사 탄강 198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려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었으나 이렇게 맑은 하늘을 대하니 수운천사님의 가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종교를 창도하신 교주님께서서는 시대를 편하게 순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시류를 따라가셨더라면 험한 고통이나 희생을 당하시지 아니했을 것이지만, 이 세상을 바꾸어 보시려고 시대를 과감하게 역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오지 않은 미래를 맞이하려 하기 때문에 그 온갖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대를 따라간다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겠지만, 오는 내세를 무형으로 본 것은 몽매한 인간들에게 유형으로써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극락이요 지상 선경입니다. 그러나 몽매한 우리들이 그런 이치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운천사께서도 우리 민족종교의 진리는 “고불문 금불문”이라 하셨습니다. 옛적에도 듣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듣지 못하는 만고부비의 진리요, 새로운 5만 년 역사를 열어 주는 개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대운을 우리가 받는 데는 적어도 3~4대의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도 고생과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성급한 계획으로 세상의 평화가 오고, 지상극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역사는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운천사께서 이 땅에 오신지 근 200년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종교의 진리에서 보면, 무위자연과 천지의 대법 정도로 인류평화와 세계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치의 동요도 하시지 말고,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최후까지 우리는 같이 가야 한다는 창교주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습니다. 옛 말씀에 가장 못난 사람에게 새 운수를 준다고 했습니다. 잘난 고관대작에게 새 시대 운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못났지만 제 본성을 지킨 사람을 하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수운교 교인 여러분이 오매불망 염원하시는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삼대원이 속독 성취되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수운교인 여러분, 우리 민족종교인 여러분, 지상천국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갑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끝까지 같이 가시기로 약속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성기(강정유도 도정 겸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

축사

존경하는 김덕환 총무원장님과 교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수운천사 탄강 제198년 봉축법회를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수운천사께서 금강산 일만이천봉 정기를 받고 이 땅에 오신 지 198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수운천사께서는 낡은 것을 개벽하고 새로운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곳 금병산 아래 도솔천궁을 건설하여, 동학 정통을 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족종교로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이곳 도솔천은 대전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명승지로 대전시에서도 문화재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법회를 계기로 수운교가 더욱 교세를 확장하여 종교 간 화합과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불천사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19일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3·1절 합동위령제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삼일절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 및 전몰군경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수운교본부 법회당에서 김

덕환 총무원장을 비롯한 400여 명의 교인과 임직원들로 동참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이날 위령제는 삼일독립만세(1919년 3월 1일)100주년을 기해 수운교인 48위의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독립운동으로 순국하신 애국지사와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전몰군경 등 애국영령(愛國英靈)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였다.



김 총무원장은 설법을 통해 “오늘의 위령제는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애국영령(愛國英靈)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기 위하여 봉행되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위령제입니다. 이날은 축제일이 아니라 애국영령들의 숭고하고 높은 뜻을 기리며 다시는 이 땅에 나라를 빼앗기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튼튼하고 굳건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보국안민(輔國安民)에 힘을 모으기 위한 다짐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먼저 가신 애국영령들이 편히 왕생극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운교인을 대표하여 애국영령들의 왕생극락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 이 자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불천사(佛天師)님의 가피력으로 가내평안 이루시고 뜻하신 모든 일 소원성취 이루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설법하였다.

이날 천도교 중앙대 교당에서 7대종단(천도교, 수운교, 원불교,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대표자들이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 수운교에서는 이찬구 법사가 동참하여 선관선복(仙冠仙服)을 정재하고 만세삼창을 하였다.



인등 100일째기도



5월 12일 오전 10시 봉령각에서 인등백일기도와 일요 법일을 김덕환 총무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이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뜻깊은 의미가 있어서인지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미리 오셔서 경건한 자세로 시작을 기다리며 묵상

하고 있는 모습이 참선의 참모습을 보는 듯하였다. 오영순 정위사는 동경대전 필법(筆法)을 봉독하고 그 이치를 차근차근 설명하였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한마음에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획을 시작하니 모든 법이 한 점에 있느니라”라고 하였다.

성덕군 나옹불사의 말씀 중에 부자가 되고 사회적 명성도 얻고 자식이 잘되고 모든 일에 막힘이 없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돕고 자 하는 마음에 그 씨앗을 뿌려야 하며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도우면서 지어가는 것임을 깨닫고 항상 마음속에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용왕기도

4월 7일 부녀회에서 용왕기도를 전라남도 여수향일암 앞 바다에서 김은택 부녀회장을 비롯한 150여 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향일암은 삼국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관음 기도의 도량으로도



유명하다. 이곳 앞바다에서 용왕기도를 봉행할 때에는 날씨가 좋았으나 점심공양을 하는 중에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 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셔주셨다. 이날 부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용왕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명승지 앞바다를 찾아 용왕기도를 올리는 이유는 용왕



님의 가피력으로 무병장수와 모든 액난을 물리치고 뜻하신 모든 일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하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동학정신과 동학 농민혁명의 재조명

동학정신과 동학 농민혁명의 숭고한 뜻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5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사람중심의 인내천(人乃天)사상과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정신을 온 세계에 전하여 포덕천하(布德天下), 광제창생(廣濟蒼生),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삼대원(三大願) 성취로 온 인류가 일가동락(一家同樂)하는 도덕세계의 지상천국(地上天國)이 이루어지기를 온 국민이 염원하였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동학 농민혁명은 우리의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민중항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내용에서도, 규모에서도 서유럽의 근대혁명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동학 농민혁명이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 최초의 근대적 개혁운동, 최초의 반외세 민족주의 운동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총리는 “동학 민초들의 염원과 분노는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으로 폭발했고, 해방 이후의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도 동학 정신에 뿌리를 두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민주민족 의식과 역량을 일깨우고 길러준 동학농민혁명은 정당하게 평가되고 영구히 기억되어야 한다.”며 “민간과 지자체와 정부는 동학혁명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과 유적 복원에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의 동학사상은 민주주의의 근본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동학농민혁명 이후 계속된 국민의 투쟁과 희생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나긴 과정”이라며 “정부가 앞장서겠지만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다.

각계각층의 국민께서 동참해주셔야 민주주의가 진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 전

[훈법대전]

훈법대전 서 (訓法大典 序)

3. 석재인민이 사무항산이러니 언행인도리오 인의불명하고
 惜哉人民 事無恒産 焉行人道 仁義不明
 예의부정하여 내퇴륜강하고 언어이욕하여 부자 불화하고
 禮儀不整 乃頽倫綱 安於利慾 父子不和
 부부불경하니 천륜이 절의오 음양이 괴의라
 夫婦不敬 天倫 節矣 陰陽 乖矣

슬프다! 인민이 일이 항산이 없거니 어찌 사람의 도리를 행하리오. 인의가 밝지 못하고 예의가 정재치 못하여 이에 윤강을 무너뜨리고 이욕에 편이하여 아버지와 자식이 불화하고 지아비와 지어미가 공경치 아니하니 천륜이 끊어지고 음양이 무너지니라.

4. 오호석재라 천지운도 수왕유성하며 유쇠일란일치나
 嗚呼惜哉 天地運度 雖曰有盛 有衰一亂一治
 내하륜상지절과 의리지망이 지어사심고
 奈何倫常之絶 義理之亡 至於斯甚

슬프고 슬프도다! 천지의 운도가 비록 성함이 있고 쇠함이 있으며 한번 어지럽고 한번 다스린다고 이를지나 어찌하여 윤상의 끊어짐과 의리의 망함이 이다지도 심한데 이르렀는고.

5 상제 유우하사 염차증생을 교훈무로하사 정일제자하여
 上帝 有憂 念此衆生 教訓無露 正一弟子
 사송인간하시니 고기전생즉 석가세존이오 언기이생즉
 使送人間 考其前生則 釋迦世尊 言其異生則
 수운선생이시니 수명우천하사 훈도제자 이위기제자자
 水雲先生 受命于天 訓導弟子 而爲其弟子者
 부지도덕지의하여 미행인도고로
 不知道德之意 未行人道故

상제 근심하사 이 증생을 교훈할 길이 없음을 염려하사 한 제자를 정하여 인간에 보내시니 「그 전생을 상고하면 석가세존이오 그 이생을 말하면 수운선생」이시니 명을 하늘께 받으사 제자를 훈도하실새 그 제자가 된 자 도덕에 뜻이 있음을 몰라 사람의 도리를 행하지 못하는 고로,

6 상제 대강차서하사 명기천도하시고 논기인사하시니
 上帝 大降此書 明其天道 論其人事
 자이증인은 자경자오하여 대수인사하라 약비운정사급이면
 咨爾衆人 自警自悟 大修人事 若非運定事急
 기유여차 지엄지증지명재아 자갑지년 건신지월에 천상천하
 豈有如此 至嚴至重之命哉 子甲之年 健申之月 天上天下
 대사마대장군은 근수 상제 지명하여 선서후주하노라
 大司馬大將軍 謹受上帝 之命 先序後註

상제 크게 이 글을 내리사 그 천도를 밝히시고 그 인사를 의논하셨으니 슬프다. 못사람은 스스로 일깨우고 스스로 깨달

아서 크게 인사를 닦을지어다. 만일 운수 정할 일이 급하지 아니하면 어찌 이같은 지엄 지중한 명이 있으리오. 자갑의 년과 건신의 월에 천상천하 대사마 대장군은 삼가 이 상제의 명을 받아서 먼저 序(서) 내고 뒤에 註(주) 내노라.

* 【주】 子甲之年(자갑지년)은 갑자 수강 103년(1924)이요, 建申之月(건신지월)은 壬申月(7월)이니 仁虎 趙炳輝(인호 조병휘)가 하늘님의 명에 따라 降書(강서)를 받은 때임.

훈석집 언해 (訓釋集 諺解)

자이인호아 천지역수와 도지무극은 이현경전이오
 咨爾仁虎 天地易數 道之無極 已現經全
 승운찰리하여 덕화만방은 임당성순이오 훈도교육하여
 乘運察理 德化萬方 任當聖順 薰陶教育
 화성만민은 탄재차서하니 경명이덕하며 정일이심하여
 化聖萬民 殫載此書 景明爾德 精一爾心
 경수사문하여 박시만국하라 상원갑자맹추칠월에 대강차서하노라
 敬受斯文 博施萬國 上元甲子孟秋七月 大降此書

차롭다! 인호야 천지에 역수와 도에 무극함은 이미 경전에 나타났고, 운수를 타고 이치를 살피어서 덕으로 만방을 화함은 성과 순께서 임당하였고, 훈도히 교육하여 만민이 화하여 성인됨은 다 이글에 실렸으니 너의 덕을 크게 밝히며 너의 마음을 정일히 하여 공경히 이 글을 받아서 널리 만국에 베풀어라. 상원갑자 맹추칠월에 크게 이글을 내리노라.

【훈】 자이(咨爾)는 탄식하는 뜻이요, 인호(仁虎)는 조병휘(趙炳輝)의 도호요, 역수는 변하고 바뀌는 정하는 큰 운수요, 무극은 무궁한 뜻이요, 경전(經全)은 성경대전(聖經大全)이요, 승운(乘運)은 그 천운을 탐이요, 찰리(察理)는 천도와 인사에 당연한 이치를 밝게 살피이요, 덕화(德化)는 그 도와 덕을 밝히어서 그 만방으로 하여금 하염이 없이 화하게 하는 것이요, 임당(任當)은 당당히 중히 맡기는 것이요, 성순(聖順)은 양위 선생님이요, 훈도(薰陶)는 훈연히 될 그릇을 뜻함이요, 교육(教育)은 도와 덕과 어질고 착한 행실로 가르쳐서 그 양지 양능을 가르침이요, 화성(化聖)은 그 도와 덕이 지극히 어질고 지극히 착하여 화함에 이르러 성인이 됨이요, 탄(殫)은 다함이요, 재(載)는 내리어 기록함이요, 경(景)은 큰 것이요, 정일(精一)은 오직 정하고 오직 한결 같음이요, 경수(敬受)는 그 정성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다하여 천주의 명을 받아 기록하는 것이요, 박(博)은 넓은 것이요, 시(施)는 퍼는 것이니 널리 만국의 사람에게 퍼서 각각 천도가 다시 밝는 뜻을 알게 함이라.

* 【주】 聖：順(성：순)이란 성은 聖德君(성덕군) 나옹佛師(불사)님이시고 순은 順德君(순덕군) 수운天師(천사)님이시니, 곧 수운교에서 숭배하는 兩位聖師(양위성사)이시다.

〈이어서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도솔천 참배



안국선원장 수불스님

지난달 21일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이 도솔천과 삼단을 참배하였다. 수불스님은 BBS(부산불교방송) 사장과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등을 지내신 불교계의 큰스님으로 불자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다. 수불스님은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중학교를 다니는 등 대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에 부모님이 동학을 시봉하여 지금도 “지기금지원위대강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수운교 본주문과 동경대전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옛 시절을 회상

하였다. 오창윤 교무부장의 안내로 삼단을 참배한 스님은 수운교는 교리가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금병산 앞자락에 자리한 수운교도량은 청정한 기운이 흐르고 있어 참 좋은 곳에 자리하였다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신장기도



지난 3월 13일(음력 2월 7일) 도솔천 광덕문에서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신장기도를 봉행하였다.

이날 김덕환 총무원은 “매년 도솔천 광덕문에서 신장기도를 봉행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력으로 주문하는 팔통령주에 육방금도 금강대장의 명호(名號)가 담겨져 있습니다. 광덕문에 모셔진 육방금도 금강대장님의 명호를 부르지만 하면 어느 신장님보다도 먼저 강림하셔서 우리들의 염원을 들어주시는 신장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시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기해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법하였다.

문화재 소방훈련



4월 11일 수운교 도솔천과 봉령각 범회당 등 문화재보호를 위한 소방훈련을 유성 소방소와 유성구청, 교육사령부, 수운교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훈련을 마치고 군 관 민 관 계관들이 동참한 가운데 김용익 유성 소방서장은 우리나라 문화재는

대부분 목재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조기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평상시 소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오창윤 교무부장은 우리 문화재에 담겨있는 조상님들의 민족정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웃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을!



심호자 이영주

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대부분이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들이 많다.

서로 눈이 마주쳐도 미소를 짓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어린 아기들은 방긋방긋 잘 웃는다.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서 웃는 얼굴이 사라지면서 찌푸린 얼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옛날 어른들은 남자가 웃음이 헤프면 못 쓴다고 가르쳤다.

경망스럽고 보기도 흉하다고 하였다. 우리들은 내 얼굴이 얼마나 경직되고 심각해 보이는지 모른다. 웃는 얼굴을 상상해 보자!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면서 거울을 본다. 웃는 모습을 연습한다. 소리를 내 웃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잠깐 동안이다.

웃음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증거가 있다. 웃으면 엔돌핀 세로토닌의 증가로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

웃음은 호흡과 관계되는 근육의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웃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억지로 웃는 것도 건강에 좋다고 한다. 왜 그럴까?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도록 입에 젓가락을 물게 하고 힘든 일을 한 후에 혈압과 맥박이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것은 젓가락을 물은 사람은 웃을 때 움직이는 근육이 작동하고 움직이는 근육이 뇌에 웃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면 뇌는 웃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웃음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량을 늘리며 혈관건강에 도움을 준다.

많이 웃으면 혈압, 맥박을 조절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혈압이 떨어지는데 특히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내장혈관과 모세혈관이 확장돼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혈관계 질환을 개선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웃을 일이 있거나 없거나 웃다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나니!

많이 웃고 또 웃어보자!

웃는 얼굴은 나의 건강에도 좋지만 보는 사람도 즐겁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많이 웃어라!

웃음은 행복을 싣고 오는 것이니!

얼굴 주름이 하나 더 생기더라도 웃음 넘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끝을 맺는다.

기해년 5월
심호자 이영주 합장

겨레얼살리기 고등학생 백일장 대회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이사장 박성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11회 겨레얼살리기 전국고등학생 백



일장이 5월 11일(토) 서울 겨레얼 연수회관 외 4곳(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교, 광문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안산시청)에서 펼쳐졌다.

올해로 11회 째를 맞이하는 겨레얼살리기 전국 고등부 백일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잊혀 가는 겨레얼을 진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백일장은 시, 수필, 독서논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의 대주제는 <3.1운동 100주년과 겨레얼>이었다.

노길명 교수 등이 최종 심사를 하였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상, 각 부문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외 금상, 은상, 동상을 시상한다. 시상식은 7월 13일이다.

동정

☘ 법사회회의



5월 5일 오전 11시 복지관에서 법사회회의가 있었다. 법사회회의에서 지난 총회에서 인준받은 신입 법사로 대호자 이계찬 봉령군대인, 문호자 정재득 봉령군대인, 병호 이찬구 봉령군대인에 대하여 총무원장의 위촉장을 법사위원장이 수여하였다.

이날 법사회회의는 탄강기념 준비 등 현안사항을 심의하였다.

☘ 신도회



5월 4~5일 신도회 박남형 회장을 비롯한 많은 신도회원들은 수운천사 탄강기념법회 준비를 위해 축등을 설치하였다. 매년 1만여개의 축등을 새로 구입하여 도솔천과 만성당을 비롯한 솔밭공원 일원의 길가와 봉령각, 법회당 등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법회당에는 영가님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백색의 영가등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5월 25일 축등과 영가 등을 철거하였다.

☘ 도량정화

3월 9일 최재봉 법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연산 흥 2,000여 그루를 도솔천과 봉령각 법회당 주변의 청정도량에 식재하였다.

☘ 금병봉사단



3월 17일 금병봉사단(단장 정기백)에서는 독거노인 강상수 전 정위사가 거주하는 집의 도배와 집수리를 하였다. 그리고

도량정화 봉사활동을 하였다.

지난 4월 21일 병마에 시달리며 외롭고 적적인 교인들을 방문하여 이야기 말동무도 되어주고 환우 상태를 점검하고 위로하며 쾌유를 기원하였다. 그리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하였다.

5월 4일과 5일 수운교금병봉사단에서는 정기백 봉사단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단원이 동참한 가운데 수운교 문화재 주변의 도량 정화 활동을 하였다.



5월 19일 탄강기념일에 오시는 분들에게 녹두 빈대떡을 철판에 부쳐 제공하였다. 많은 분들이 옛적의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고향의 향수에 젖어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 삼왕기도



수운천사 탄강기념법회를 앞두고 5월 4일 오후 3시 법회당 장실에서 조왕기도를 봉행하고 7일에는 용왕기도를 봉행하였다. 이어서 5월 10일(음 4. 6) 오후 3시 금병산 산제단에서 산왕기도를 봉행하였다. 김덕환 총무원장과 양원운 고문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한 가운데 이태화 경위사와 김승천, 오영순 정위사, 문제현 정필사 등이 삼대원 속덕 성취와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였다.



☘ 배구대회



5월 19일 수운천사 탄강기념 배구대회가 있었다. 이날 대전배사모, 대전광역시청, 중구청 동호회,

수운교 동호회 등 4팀이 출전하여 친선경기를 하였다. 우승에는 중구청 동호인 팀이 우승하여 트로피와 상금을 수상하였다.



☘ 부녀회 활동



5월 14일 부녀회(회장 김은택)에서는 탄강기념법회 준비를 위한 불기 세

척을 하였다.

부녀님들의 섬섬옥수로 불기를 닦고, 공양 준비를 위해 김치와 반찬을 마련하는 손길은 늘 분주하다.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탐방



5월 19일 수운천사 탄강기념일을 맞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구형찬 교수의 지도하에 박사과정 학생들이 도솔천과 봉령각 법회당 등을 탐방하고 사람중심의 동학정신을 탐구하며 200여 년 전 수운천사 탄강의 의미와 160여 년 전 득도의 참 뜻을 새기며 학문연구의 기본 자료를 탐구하였다.

☘ 문인탐방

5월 14일 대전문화재단 소속 문인들이 도솔천을 탐방하고 동학사상과 민족정신을 탐구하였다.

☘ 도위수여

5월 19일 오후 2시 도솔천에서 봉령군대인 18인과 학선군대인 28인 그리고 학선군부인 26인에 대한 도위를 승서하였다.

☘ 중학생 문화재 탐방

2019 대전의 미래를 여는 중학생 문화재 탐방은 대전광역시의 대전역사문화 뿌리찾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 교육청 산하 70개 중학생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선조님들의 삶의 슬기와 지혜를 일깨워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다. 문화재 탐방은 수운교를 비롯한 우암사적공원, 진잠향교, 단재 신채호 생가지 등을 탐방한다.

수운교의 독립운동사

• 철원 사건

일본 총독부는 수장 116년(1937년, 정축년) 1월 9일 동학 수운교를 일본 진종불교 동본원사에 강제 통합시키고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일본 쪽을 향해 일본 천황에게 최고의 예배를 강요) 신민서사를 매일 외우게 하는 등의 식민탄압이 점차 심해지던 그해 5월에는 수운교의 이름을 폐지하고 「홍릉사」로 강제 교명을 개칭하여 수운교의 의식은 물론 예관 예복 경전 교리 등 30여 종목에 대한 폐지령을 내리고 교단의 감시를 더욱 강화하면서 수운교에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히 말살하였다.

1940년 5월경에는 서무이사(현 교무직위) 김찬호가 “조선인은 조선의 국권을 회복해야 하고 수운교 의식을 행하여야한다.”는 등의 요지로 교인들을 결합하자 일제는 그를 수운교에서 강제로 퇴거령을 내려 그의 고향인 강원도 금화군 근남면 양재리로 추방하고 수운교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서무이사 김찬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수운교 의식으로 민족해방과 지상천국 실현을 위한 치성기도를 봉행하여 1940년 7월 천사님으로부터 강서(명운경)을 다섯 차례에 걸쳐 받으니 민족의 해방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1940년 7월 7일 명운경 1장, 1940년 7월 14일 명운경 2장, 1940년 7월 21일 명운경 3장, 1941년 2월 4일 명운경 제4장, 1941년 6월 6일 명운경 제5장으로 무극대도임을 다시 천명하였다.

강서 제1장에 이르시길 오도는 무극대도요 즉 천도이다. 선천적 유·불·선 3교는 배타적 배반적 小道(소도)임을 알고 차세중생은 人侍天(사인여천)을 각지하라. 이는 일본의 진종불교가 대도가 아님을 다시 강조하심이라

서무이사 김찬호는 강서의 내용을 교인 등에게 알리며 더욱 열심히 치성기도를 봉행하다 왜경에게 발각되어 1942년 봄부터 검거하기 시작하여 이에 동조하는 전국의 중진교인 28명이 투옥되고 심한 고문으로 박태영, 이규면, 신맹섭, 길호순, 이달풍 등 5명의 교인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망(순교)하였다.

경성지방법원은 1943년 8월 14일 국체를 부정하고 황실의 존엄을 모독했다 하여 예심판결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으로 김영한, 이하림, 안중록, 장명찬, 이린기, 이영익, 이기서, 김봉인, 한관진, 유익룡, 이규현, 백주현, 심의운, 박광명, 장창익, 신윤철, 서병로, 김찬호, 최병권, 김세영, 이도재, 김도준, 이명성 등 24명을 경성 지방법원 합의부공판(제2심)에 부쳤으나 공판이 열리지 못하고 미결수 상태에서 1년 6개월간의 혹독한 옥고를 치루었다.

이 사건은 1936년 일본 쿠데타 이후에 조선 사상범 관찰령을 내려 공개적인 독립운동이 불가능하고 친목활동이나 학술행동도 할 수 없는 강점기의 대표적인 운동방식의 일환으로 일본의 패망선전, 치성기도 등의 종교 독립운동 방식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일제의 한국민족정신 말살정책에 항거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 내려는 수운교인들의 진정한 자주독립운동이라고 규정해야 함당하여 이분들의 애국적 행동에 반드시 명예가 회복되길 희망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걸쳐 제출하였으나 수형기록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일제에 의해 멸실됐을 것으로 추정) 아직까지 정부의 서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위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와 유가족들께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관련된 자료를 더 수집하고 있으나 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수운교 청정봉사단



수운교 청정봉사단(단장 김옥산)에서는 수운강생 198년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연인원 40명이 2019 제주들불축제 현장에서 홍보부스 운영, 기념뱃지 만들기, 원시 불 피우기 체험, 전통의상 체험 등 제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장 봉사활동을 하였다.

4월 2일과 4월 3일 단원 31명이 제주 4.3평화공원 기념행사장에서 무료 음료봉사활동을 하였다.

4월 11일 단원 19명이 제20회 제주시 한마음 장애인 체육대회 건기대회 행사 보조를 하였고, 이날 김옥산 단장은 제주도 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제주도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된 5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장에서 재무국장 강정희씨가 제주시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5월 4일 단원 8명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어줬다.

매주 수요일 제주시 노인복지관에서 200인분 분량의 음식을 조리하여 노인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 독거노인 12분에게 반찬 배달 등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수운교의 사인여천(事人如天)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계·시·판

하반기 법회안내

〈문의 ☎ (042) 861-1771〉

● 삭망치성기도	매월 음 1일,15일	오전 7시 20분 3 단
● 백일기도치성	매월 음 27일	오후 2시 봉령각
● 수련기도	매월 음 1일~7일	오후 2시 봉령각
● 법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법회당
● 합동시향재	6월 7일 (음 5월 5일)	오전 10시 공설묘지
● 칠석기도입재	8월 1일~ (음 7월 1일~7일)	오후 5시 도솔천
● 수능백일기도입재	8월 6일 (음 7월 6일)	오전 10시 봉령각
● 백중위령재일	8월 15일 (음 7월 15일)	오전 10시 법회당
● 인등이백일기도	9월 1일 (음 8월 3일)	오전 10시 봉령각
● 3.7기도 입재	9월 26일 (음 8월 28일) 21일간	오전 10시 봉령각
● 교주열반일	10월 16일 (음 9월 18일)	오전 10시 법회당
● 조왕재일	10월 27일 (음 9월 29일)	오후 3시 장실
● 용왕재일	10월 30일 (음 10월 3일)	오후 3시 장실
● 산왕재일	11월 2일 (음 10월 6일)	오후 3시 산제단
● 개교기념일	11월 11일 (음 10월 15일)	오전 10시 도솔천
● 위령재일	11월 12일 (음 10월 16일)	오전 10시 법회당
● 수능백일기도종공	11월 13일 (음 10월 17일)	오전 10시 봉령각
● 인등삼백일기도	12월 8일 (음 11월 12일)	오전 10시 봉령각

경로잔치 및 화합의 한마당

6월 2일 오전 11시 수운교 본부 사무실 앞 잔디 광장에서
금병봉사단 주관으로 경로위안잔치 및 교인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어 자리 빛내주시길 기원합니다.

금병봉사단장 정기백 심고

자연의 섭리(攝理)

인생길은
정처 없이 떠다니는 나그네와 같다.
나무는 나이테가 많아질수록 크고 훌륭한 재목이 되지만
인생은 연륜을 거듭할수록 고독과 허무의 늪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물어도 알 수 없는 물음에 봉착하지요!
인생은 무엇이며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가?
인생은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열차에 오른 것과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왔던 때처럼 어느 낯선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고 싫든 좋든 내려야 합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두가
내릴 때에는 빈손으로 내려야합니다.
모든 번뇌 모든 오욕을 끊고 떠나야 합니다.
생.노.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은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수불식(流水不息)은 백천도회(百千都會)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흘러 언젠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괄목상대(刮目相對)할 그날을 위해
후회없는 삶을 살다 갑시다.

공·기도비를 납부합시다

공·기도비(7만원)는 수운교 교헌에 의하여
매년 음력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납부하는 교인의 의무입니다.

〈문의 ☎(042) 861-1771〉

농협 453116-51-010348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새마을금고 9002-1796-7840-6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 본부 국내 교인만 입금하고 지부교인은 소속지부에 납부바랍니다.

포덕성금 모금에 동참합시다

포덕성금은 3대원(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성취를 위해
교화사업을 하기 위한 성금입니다. 3대원 속득 성취를 위해
많은 분들이 성금 모금에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인 1만원 이상 자동이체하여 주시면 됩니다.

농협 453116-51-062203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장학성금 모금에 동참합시다

장학성금은 수운교인 또는 수운교와 인연이 있는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주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성금입니다.

1인 1만원 이상 자동이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협 453116-51-073795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장학금 수여



지난 3월 1일 오전 10시 법회당에서 장학금을 전
달하였다. 장학금은 수운교 발전과 미래사회를 이
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 매년 삼월일일 선망부모
조상님과 나라를 위하여 순국하신 애국지사와의
몰군경에 대한 합동위령제일에 수여하고 있다.

황덕호 장학생 : 한밭대학교 3학년 박지현, 제주대학교 2학년 송민주,
재단법인 장학생 : 한남대학교 1학년 김보은, 반석고등학교 2학년 김수빈,
복수고등학교 1학년 오정식, 다정중학교 1학년 박지현, 제주 대정고등학교
2학년 박경진, 제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고지형.

쾌척성금

▶ 현금회사

- 100만원 이상 : 김명찬, 최영례, 박영창, 익명(용왕재)
- 50만원 이상 : 김승갑, 조옥희, 한옥산, 박남형, 이상호
- 30만원 이상 : 이영주, 김전중, 민병열(농협조합장)
- 20만원 이상 : 윤기갑, 김영호, 정기숙, 박복희
- 10만원 이상 : 박종락, 나동섭, 이현호, 광기중, 임응철, 안상원, 김광남, 김홍윤, 이권재, 강순애, 탁선홍, 이광수

▶ 화합·화분

- 한국민족종교협, 갯정유도, 선교, 증산도, 한국종교협, 최원구(설송), 대성건업(제주), 나리목장(제주), 우성교통(제주), 화진건설(제주), 국민건강원(제주), 본부 신도회 일동, 본부 부녀회 일동, 금병봉사단 일동, 용호회 일동(봉개지부)

▶ 물품회사

- 석영일(명원타울), 김창범(남버원농장), 최춘자, 이미경, 백용란, 오동구, 고용혁, 허혜원, 김갑선, 김태운, 정옥순, 강택중, 유희자, 이덕례, 안정숙, 손만순, 장시운, 민송순, 이장성, 강순애, 양설자, 홍석반, 양홍익, 김덕명, 강철우, 강수언, 유만준, 익명

▶ 개금불사(추가접수)

- 서상유, 김금순, 이석련(제90호 오타정정/덕→석)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봉령군대인 김관열(子 김홍은) 학선군대인 최원구(子 최강식)